

# 정원을 소재로 한 그림책에 나타난 성경적 돌봄의 의미\*

## The Meaning of Biblical Care in Picture Books About Garden

국경아 (Kyeong A Kook)\*\*  
현은자 (Eun Ja Hyun)\*\*\*

### ABSTRACT

In these days, the conflict between children's autonomy and the protection and intervention of adult teachers is becoming a real topic of discussion in the educational field. This paper examines the essence of education-care in a Christian way and point out that providing appropriate care for children is the right that adults should provide to children. To this end, in this paper, picture books based on gardens were selected and examine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picture books based on the garden, it was found that the care devoted to others with royal authority and humanistic meaning of the garden, which restores life, as a 'separated area'. In addition, we could see the teachings and care of older generations are passed dow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and bear fruit. Through picture books that examine the essence of caring from a Christian perspective and show it well, we will be able to reaffirm our responsibilities as adults who should practice caring.

**Key words:** The Christian Essence of Caring, picture book, child education.

\* 2022년 5월 17일 접수, 6월 7일 최종 수정, 6월 8일 게재 확정.

이 논문은 한국기독교유아교육학회 2021년 정기학술대회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Department of Child Psychology and Educ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박사과정 수료,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호암관, viruskka@skku.naver.com

\*\*\*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Department of Child Psychology and Educ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교수,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호암관, hyunejl@skku.edu

## I. 들어가며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누리고 행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Rober, 1995; 하여진, 2020: 36에서 재인용)를 의미한다. 모든 인간의 인권은 존중받아야 하고 아동의 인권도 예외될 수 없는데, 특히 아동 인권은 1989년 UN 아동권리협약 채택과 이후 각 국의 비준 등으로 본격적인 국제적 관심과 정책 추진의 대상이 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1990년 9월 25일 아동권리협약에 서명하고, 1991년 11월 20일 비준하여, 12월 20일 협약 당사국이 된(배윤주, 2013: 47) 이후 지속적으로 아동 인권과 복지 향상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여가고 있다. UN 아동권리협약의 아동의 기본 권리는 크게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으로 규정되고 이 4대 기본권은 다시 차별금지, 아동의 이익 최우선 추구, 아동의 생존과 발달 보장, 아동 의견 존중이라는 4가지 우선적 가치에 바탕을 두고 있다(임세와 외, 2020: 하여진, 2020). 이 때 4가지 우선적 가치 중 하나인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인가가 규명되어야 추구될 수 있는 원칙이다. 그리고 무엇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인지는 결국 아동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느냐 하는 아동관을 기초로 하게 된다.

아동관과 관련하여 현 시대에 가장 실질적인 쟁점이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아동의 자율성에 관한 것이다. 성인의 축소판으로만 여겨져 오던 초기의 아동관에서부터 출발하여 성인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미성숙하고 결핍된 존재로서 아동관을 거쳐 이제는 아동의 자율성과 자발적 참여가 과거의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아동관의 변화에는 아동을 미성숙하고 결핍된 존재로만 바라보던 과거의 아동관이 성인의 과도한 간섭과 아동의 수동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폐해를 불러왔다는 것에 대한 반성이 깔려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반성으로서 아동의 자율성과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는 것 또한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적지 않은 혼란과 고민을 야기하고 있다. 아동은 성장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성장 중인 존재라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인간의 아기는 동물들의 아기와는 다르게 매우 연약한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나며 혼자 생존하기 위해서도 꽤 긴 시간이 필요하다. 성장기라고 불리우는 이 기간 동안 아동은 부모와 교사의 돌봄을 통해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인격체로 완성되어 나가게 된다. 아동 고유의 이러한 특성은 UN 아동권리협약에도 반영되어 있어서, 아동의 잠재력과 존엄성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성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취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있다(김호현, 2019: 270). 이처럼 성인과 사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성장단계에 놓인 아동 고유의 특성으로 인해 아동권리의 개념은 권리주체인 아동의 자율성 대 성인과 사회의 보호권 간의 불가피한 마찰을 구조적으로 포함하게 된다(임세와 외, 2020: 643). 또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한다는 원리와 아동의 의견 존중 원리를 함께 증진하는 일 역시 쉽지 않은데 두 원리가 조화되기도 하지만 충돌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이기범, 2018: 24).

교육 현장에서도 이와 같은 가치의 충돌로 인한 교사들의 고충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다. 특히 누리과정 개편 이후 아동의 자율성과 자발적 참여가 더 권장되고 있는 시대 분위기에 따라 아동 교육에 있어서 성인의 개입을 꺼리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한다는 원칙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아동이 온전한 성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그들을 보호하고 돌볼 책임을 가진 교사와 부모가 어떤 돌봄을 아동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될 지 고민하고 고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돌봄의 본질을 기독교적으로 살펴보고 아동에게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아동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성인의 책임이자 권리임을 논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정원을 소재로 한 그림책들을 평론하는 작업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인간-아담에게 최초로 주신 소명은 정원-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돌보라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정원은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에게 주신 삶의 터전이자 경영을 명하신 세상이었으며 이때 경영은 피조물들을 지혜롭고 다스리는 돌봄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실질적으로도 정원을 가꾸는 행위에는 생명들을 가꾸고 그 생명들이 조화롭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운영의 면이 분명히 들어 있다. 따라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소명인 '정원을 돌봄'이라는 측면에서 돌봄의 본질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아동, 특히 세상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는 영유아들에게 그림책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창(窓)(현은자 외, 2019)의 역할을 한다. 나아가 그림책은 여타의 문학과 마찬가지로 일반은총 교리를 반영하는 은유로서도 기능할 수 있다. 실제로 정원을 소재로 한 그림책들을 살펴보면 정원 가꾸기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다루는 정보책, 그리고 정원 혹은 텃밭을 가꾸면서 그 안에 가득한 생명력을 노래하는 책들이 많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또 많은 그림책들이 정원에서 생명이 피어나고 가꾸어지는 모티프를 통해 사람의 생명이 새롭게 회복되는 이야기 혹은 정원을 통해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다. 아동에게 이 세상이 어떠한 곳인지 보여주는 최초의 매체가 다름 아닌 그림책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이처럼 정원을 소재로 한 많은 그림책들이 정원과 용서, 정원과 회복 등 인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들을 정원과 연결 지어 그려내고 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연구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정원을 소재로 한 그림책들을 통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돌봄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 성인이 아동에게 제공해야 하는 돌봄이 어떤 성격이어야 하는지 성경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렇게 기독교적으로 살펴본 돌봄의 본질을 현대에 적용했을 때, 즉 아동의 자율권과 성인의 보호 간 개념적, 실천적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현 시점에 적용했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결론 부분에서 다시 논하고자 한다. 말하자면 본 연구는 아동의 자율성이 강화되면서 성인의 보호 및 개입이 꺼려지고 있는 현재의 분위기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출발하여 이에 대해 아동 돌봄의 본질을 기독교적으로 살펴봄과 해답을 찾고자 하는 연구 방

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리고 그 수단으로 아동 인권, 아동 돌봄을 직접적으로 논하기보다, 하나님께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돌봄 명령이 정원-에덴 동산을 돌보고 경작하라는 것에서 착안하여, 정원을 소재로 한 그림책들을 평론하며 돌봄의 본질을 살펴보고, 앞서 제기한 문제들을 바라볼 때 그 살핀 돌봄의 본질을 어떤 관점으로 적용해야 할지 논하고자 한다. 인간의 받은 최초의 소명이었던 정원을 돌봄이라는 소재를 가진 그림책들을 통해 돌봄의 본질을 기독교적으로 살펴보고 아동에게 어떤 돌봄을 제공해야 할지 고찰해보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아동 돌봄 및 교육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살펴보는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정원 소재의 그림책을 통해 정원이라는 공간이 가진 인문학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정원은 꽃과 작물을 심어 그 소산물을 취하거나 풍경을 감상하는 공간이라는 실용적인 기능을 우선적으로 가지지만, 본 연구는 정원의 실용적 기능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원이 가진 인문학적 의미가 인류 최초의 정원이었던 에덴 동산과 어떤 관련을 가지는지, 나아가 성경적 관점에서 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정원 소재의 그림책을 통해 돌봄의 본질을 성경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그 돌봄의 본질을 아동 돌봄에 적용했을 때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정원 소재 그림책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그림책은 『용서의 정원』, 『지하정원』, 『리디아의 정원』, 총 3권으로, 이 3권의 그림책은 2021년 서울문화재단 토요일문화학교 꿈다락 사업에서 필자가 참여했던 ‘어린이의 정원’ 프로그램에서 선정, 사용됐던 그림책들 중 일부이다. ‘어린이의 정원’은 초등 3, 4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텃밭 가꾸기와 그림책을 연계하여 개발, 실시한 총 20차시의 통합예술수업 프로그램으로, 20차시의 프로그램을 위해 각 차시별 프로그램의 주제와 구성에 적절한 텃밭, 정원 관련 그림책들을 사용하였다. 당시 그림책 선정을 위해 필자를 포함하여 아동문학 전공자 대학원생 1명과 함께 제목과 내용에 정원, 텃밭의 키워드를 가진 그림책들을 1차적으로 선정하여 국립어린이 청소년도서관과 서울시교육청 어린이 도서관에서 그림책들의 내용을 비교해 보고 ‘어린이의 정원’ 프로그램에 적절한 그림책들을 20권 최종 선정하였다. 해당 프로그램은 텃밭과 그림책을 연계한 통합 예술 수업으로 어린이들이 함께 텃밭을 가꾸며 인간의 돌보는 수고와 자연이 거저 주는 햇빛, 비, 바람 등 자연의 선물이 어우러져 생명이 자라나는 경험을 직접 하며 그 안에서 자연과 생명, 아름다움, 예술적 감성을 충만히 느끼는 것을 목표로 고안된 프로그램이었으며 함께 텃밭의 식물들을 가꾸는 과정에서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한 목표 중 하나였다. 이를 위해 선정된 20권의 그림책들은 자연, 생명, 돌봄, 공동체 등의 키워드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한편 텃밭, 정원 소재의 그림책들은 정원 가꾸기에 대한 정보나 정원에서 꽃과 식물이 자라나는 1차적인 내용뿐 아니라 정원에서의 돌봄이 2차적으로 회복, 화해 등으로 연결되는 내용, 혹은 회복, 화해 등을 그 내용과 제목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이는 뒤에서 상술

하게 되겠지만 정원이라는 장소가 가지고 있는 인문학적 의미와 연결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정원에서 일어나는 돌보는 행위와 연결되어 돌봄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처럼 정원을 소재로 한 그림책을 통해 돌봄의 본질을 살펴보기 위해 20권의 그림책 중 정원의 인문학적 의미, 돌봄의 본질 등이 잘 드러나는 3권을 다시 선정하였고 각 그림책의 글과 그림, 페리텍스트를 관찰, 분석하였다.

그림책의 글과 그림, 페리텍스트를 관찰, 분석하는 데에는 현은자(2017), Barrett(2000)의 묘사, 해석, 판단 중 묘사, 해석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미술 비평 이론가 테리 바레트(Terry Barrett)는 묘사, 해석, 판단으로 그림 비평의 세 요소를 정리했으며, 현은자(2017)는 그림책은 글과 그림이 함께 어우러진 매체이므로 묘사, 해석, 판단과 더불어 스토리텔링을 함께 보며 그림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분석해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그림책의 글과 그림의 다양한 관계,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야기의 흐름, 페리텍스트, 도서로의 물성 등을 세세히 살피며 글과 그림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바레트의 묘사, 해석, 판단을 좀 더 상술하면 먼저 묘사 단계는 관찰의 단계로서 좋은 묘사는 해석과 비판의 기초가 되며 평가에 설득력을 부여한다(현은자, 2017: 218). 해석의 단계는 작품에 담긴 주장, 세상과 인간과 나의 삶과 관련하여 주장하고 있는(Barret, 2000: 200) 그 무언가를 읽어내는 단계로서 텍스트와 독자의 대화에 자주 비유되곤 한다(현은자, 2017: 219). 마지막 판단은 그 작품이 가치 있는지, 그렇다면 그 근거와 기준은 무엇인지를 밝히는 단계(현은자, 2017: 220)로서 작품 비평의 최종 단계에 해당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론을 적용하여 그림책의 글과 그림, 페리텍스트 등을 꼼꼼히 관찰(묘사)하고 정원의 의미, 돌봄의 본질, 아동 돌봄의 바람직한 모습 등 본 연구에서 다루는 주제와 관련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그림책의 글과 그림, 스토리텔링 등을 해석해 내었다. 다만 판단은 이것이 가치 있는 그림책인지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해당하지 않는 작업이므로 판단 단계를 생략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정원 소재 그림책을 통해 본 정원의 인문학적 의미는 무엇인가?
2. 정원 소재 그림책을 통해 본 돌봄의 성경적 본질은 무엇인가?
3. 정원 소재 그림책을 통해 본 성경적인 아동 돌봄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3권의 그림책들을 통해 정원의 인문학적 의미, 돌봄의 성경적 본질, 성경적인 아동 돌봄의 모습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각 그림책들이 특히 잘 보여주고 있는 점들을 그 그림책과 함께 중점적으로 기술

하고자 한다. 3권의 그림책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정원의 인문학적 의미, 돌봄의 본질 등을 기술하는 것도 연구의 방법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연구 문제를 특히 잘 보여주는 개별 그림책 1권씩을 짝지어 논지를 좀 더 선명히 부각하고자 하였다.

## II. 정원의 인문학적 의미

### 1. 정원의 어원적 의미

법률적으로 정의할 때 정원(庭園, garden)은 식물, 토석, 시설물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하며, 사전적으로 볼 때는 흙·돌·나무 등의 자연재료와 인공물 및 건축물에 의해 미적·기능적으로 구성된 구역(구성요소로 계단, 담, 울타리, 테라스, 벤치, 잔디와 지피류, 조명, 조각, 기타 장식물 등)을 의미한다(산림청, <http://www.forest.go.kr>; 최지연, 2018: 825에서 재인용)

정원은 역사적으로는 동·서양 모두 실용적인 목적을 위한 텃밭 개념에서 출발했다고 여겨진다(고정희, 2011; 최지연, 2018). 한국, 중국 등에서 정원은 신화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채소를 가꾸는 채소원,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어떤 격리된 구역(최지연, 2018: 826) 등에서 그 시초를 찾을 수 있고 서구에서는 성경의 에덴 동산이 최초의 정원으로 여겨진다(최지연, 2018: 826). 정원의 어원적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 한자로 정원(庭園)은 쟁기로 가꾸는 것, 울타리 안에 과수, 화목이 어우러진 공간, 주거공간에서 벗어난 들과 산림 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우경숙·서주환, 2016: 4; 최지연, 2018: 826에서 재인용). 서구권에서 통용되는 정원을 뜻하는 단어들은 영어 garden, 독일어 garten, 프랑스어 jardin 등인데 이 단어들은 원래 히브리어 gan과 oden 또는 eden의 합성어로서 gan은 울타리 또는 둘러싸는 공간이나 둘러싸는 행위를 의미하며 oden은 즐거움이나 기쁨을 의미한다(김용식, 2013, 19; 최지연, 2018: 826에서 재인용). 이상 정원의 어원적 의미에는 동서양 모두 구별된 구역이라는 의미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고 특히 기독교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서구권에서는 성경의 에덴동산이 정원의 시초로 여겨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 정원의 인문학적 의미: 구별된 곳 『용서의 정원』

#### 1) 그림책의 글과 그림

『용서의 정원』은 로런 톰프슨이 글을 쓰고 크리스티 헤일이 그림을 그렸으며 2018년 시공주니어에서



출판되었다.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 이슬람교와 기독교 사이의 분쟁을 치유하고자 만들어진 ‘용서의 정원’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한다. 실제로 있는 ‘용서의 정원’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작품만큼 그림책의 내용 역시 적대 관계에 있는 가상의 두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계곡의 개울을 사이에 두고 있는 바얌 마을과 감테 마을은 이유도 모르는 채 오랫동안 적대 관계에 있어왔다. 어느 날 두 마을의 말다툼 도중 감테 마을의 소년 카룬이 던진 돌에 바얌 마을의 소녀 사마가 쓰러지고 얼굴에 커다란 상처를 입는다. 사마는 분노와 슬픔을 달래러 개울에 갔다가 자신의 얼굴에 생긴 흉터를 비춰보며 그 흉터보다 더 어둡고 찌푸리고 있는 자신의 얼굴 표정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 뿐 아니라 자신의 마을 사람들도, 그리고 건너편 마을 사람들도 모두 그런 얼굴 표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는 자신들이 모두 똑같이 두려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어느 날 사마에게 돌을 던졌던 카룬이 바얌 마을에 잡혀 오고 마을 사람들은 사마에게 돌을 던져 복수하라고 한다. 그러나 사마는 집어들었던 돌을 멀리 던지며 이 곳에 용서의 정원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사마의 말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 둘씩, 카룬에게 던지려고 가져왔던 돌들을 쌓아 정원의 울타리를 만들고 주변에 꽃과 나무를 심어 용서의 정원을 만든다. 완성된 정원 안으로 사마와 카룬은 먼저 들어가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책이 끝난다.

책의 모든 장면들은 펼친 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책의 펼친 면을 활용함으로써 계곡의 개울을 사이에 둔 적대 관계의 두 마을을 가로로 긴 넓은 시야에서 바라보게 한다. 책의 색조는 전반부, 용서의 정원이 만들어지기 전의 본문들은 주로 갈색과 차가운 청색이 주조를 이루다가, 용서의 정원이 만들어진 후의 본문들은 노랑, 청록, 보라 등 부드러운 파스텔 톤으로 바뀌며 색조를 통해 이야기의 분위기 변화를 전달한다. 사람들의 모습은 주로 검은 실루엣으로 표현되어 사람들의 동작을 간결하게 보여주는 효과를 준다. 그리고 간결하게 표현되는 사람들의 행동과는 대조적으로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확대하여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교차되곤 하는데, 이렇게 확대된 얼굴 표정을 통해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좀 더 zoomin하여 자세히 보여주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행동과 얼굴표정-심리상태-의 대조는 이야기의 흐름과 맞물리어, 정작 서사가 적대 관계에 있는 이유도 모른 채 오랫동안 습관처럼 공격하고 다투기만 하는 성찰 없는 행동들과 그 성찰 없는 행동 때문에 점점 피폐해져가는 마음의 복잡다단함을 대조시켜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 2) 구별된 곳으로서 정원

『용서의 정원』은 정원을 소재로 한 그림책이지만 실제로 꽃과 나무 등 정원의 식물을 심고 가꾸는 장면은 한 장면에만 등장한다. 정원의 식물을 심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원을 만들기로 결심하는 사마의 마음의 변화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정원을 만든 이후에도 정원의 외형적인 아름다움보다는 정원 안

에 들어가기로 결심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원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말하자면 『용서의 정원』은 정원 자체보다는 정원을 통해 변화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비단 그림책뿐만 아니라 정원을 소재로 한 문학작품들에서 이렇게 정원을 통해 변화하는 사람들이 꽤나 자주 등장하곤 하는데 대표적으로 Frances Hodgson Burnett의 『비밀의 화원(정원)』을 들 수 있다. 1911년 초판 인쇄 이후 100여 년 동안 꾸준히 사랑받는 고전 아동도서인 『비밀의 화원』은 각자 상처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비밀의 화원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함께 놀면서 상처와 서로 간 관계성을 회복하는 이야기이다. 이들의 관계성 회복은 자신의 상처로 인해 화원을 폐쇄시켰던, 주인공 소녀의 삼촌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온 집안 식구들이 회복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처럼 정원 안에서 변화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문학 작품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은 정원이라는 장소가 가지고 있는 관조와 성찰의 힘, 그 구별된 공간에서 식물들을 돌보고 감상하면서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생명의 힘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용서의 정원』 역시 그러한데 이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장면 10과 장면 11에서 사마와 마을 사람들이 돌을 하나씩 돌씩 쌓아서 정원의 벽을 만드는 장면이다. 증오와 분노 속에서 용서의 정원을 만들기 위해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정원의 벽, 즉 다른 곳과 구별되는 장소로서 정원의 울타리를 만든 것이었다. 앞서 정원의 어원에 울타리로 둘러싸인 공간, 구별된 장소라는 의미가 들어 있다는 것을 말했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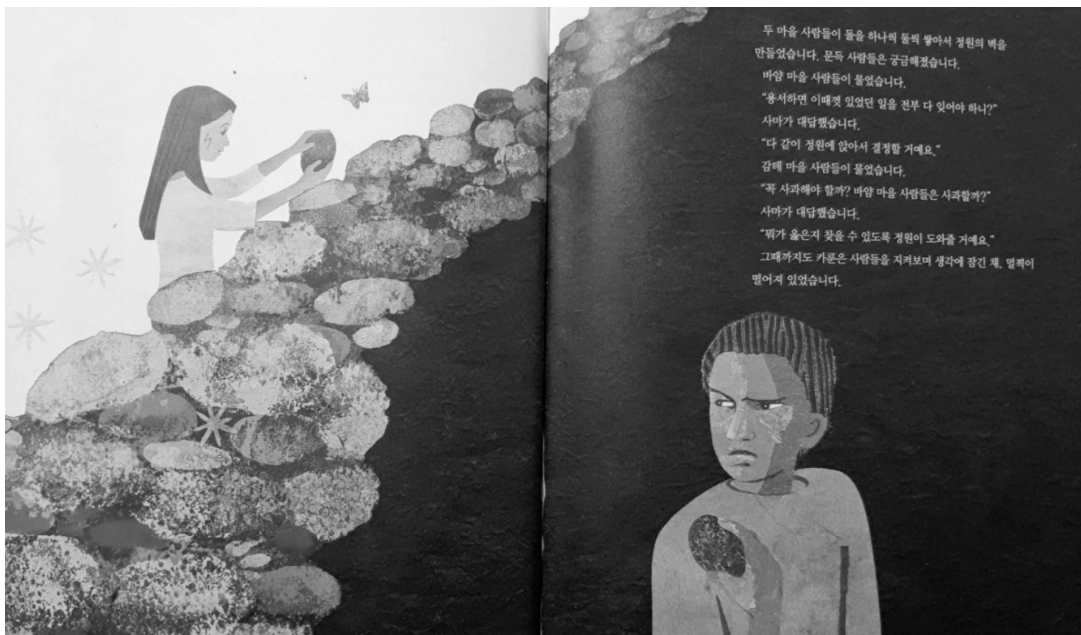


Figure 1. 『The Forgiveness Garden』 Scene 11



는데 『용서의 정원』은 바로 정원의 이런 성격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바깥 세상과 구별된 장소로서 정원은,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휴식을 제공하고 관조와 성찰을 통해 새롭게 세계를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Harrison(2012)은 뉴욕시의 홈리스들이 주변의 자잘한 물건들을 가져와 자신들만의 구별된 장소로서 정원을 만든 일화를 소개하며 집이 없는 그들조차 세상과 잠시 구별되는 장소를 본능적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원은 이처럼 주변에 대해 경계를 그어 자신만의 영역을 만들어, 그곳을 소란한 세상의 고요한 정지점(Harrison, 조정진 외 역, 2012: 12-13)으로 만드는 기능을 한다.

정원의 또 다른 속성은 이렇게 바깥 세상과 구별되는 곳이지만 동시에 이 세상 속에 분명히 실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정원은 일정 정도 바깥 세상과의 폐쇄성과 개방성을 동시에 가진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정원이 이렇듯 바깥 세상과 구별되지만 동시에 이 세상 속에 실재하고 있다는 점은, 정원이 가진 휴식과 성찰의 힘, 그 안에 깃든 생명력이 결국 어디를 지향하는 것인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용서의 정원』의 장면 11-장면 13은 두 마을 간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증오가 어떻게 해결되기 시작하는지 잘 보여준다.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거대한 증오와 분노 앞에서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할지 주저하고 염려한다. 그런 마을 사람들에게 사마는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일단 정원 안으로 들어오라고 권한다. 그 곳에서 함께 이야기하고 해결책을 찾아보자고 한다. 정해져 있는 해결책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원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그 안에서 함께 새로운 시각을 회복하고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바깥 세상과 구별되지만 엄연히 그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는 공간, 이런



Figure 2. 『The Forgiveness Garden』 Scene 13

공간이 가진 인문학적 힘에 대해 Hrrison(2012)은 ‘가장 나쁜 층동에서 현실을 구원하기 위해 문화적, 윤리적, 시민적 덕목을 가꿀 수 있는 곳은 지상의, 자기 안의, 혹은 사회 집단 가운데에 있는 한 뼨의 땅 (Harrison, 조경진 외 역, 2012: 20)’이라고 평한다. 새로움은 거대한 정복에서가 아니라 자신에게서, 자신 주변의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정원의 이러한 공간적 속성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 역사와 묘하게도 닮아 있다.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여 이스라엘 12지파로, 그리고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역사는 구별된 한 사람에서 한 민족으로, 그리고 온 교회로 확장되어 가는 역사이다. 교회의 역사는 결국 이 세상 속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나 구별됨으로 인해 자신과 주변을 거룩하게 만드는 역사의 완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III. 돌봄의 성경적 본질: 인간의 소명 - 『지하정원』

#### 1) 그림책의 글과 그림

『지하정원』은 조선경 작가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렸으며 보림 출판사에서 2005년에 출판되었다. 『지하정원』은 지하철 역을 청소하는 청소부 모스 아저씨의 수고와 돌봄을 통해 더럽던 지하철 역사가 생명력을 회복하고 이 생명력이 그 주변 전체로 퍼지는 이야기이다. 본문은 뒷산의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한 작은 나무를 비좁은 화분에 심어놓고는 그 나무를 어딘가 적당한 곳에 다시 옮겨 심어줄 것을 신경 쓰면서 새벽 출근을 하는 모스 아저씨가 모습으로 시작한다. 모스 아저씨는 정체모를 악취에 대해 불평하는 승객들을 위해 그 다음날부터 자신의 청소구역이 아닌데도 냄새의 근원지를 찾아 지하철 터널 안으로 들어가 그 곳을 청소하는 성실한 사람이기도 하다. 그 곳에서 모스 아저씨는 환기구를 통해 지상의 빛이 한 조각 들어오는 작은 공간을 우연히 발견하고는 쓰레기 더미에서 주워왔던 나무를 그 곳에 옮겨 심고 매일 지하철 역사를 청소하며 정성껏 나무를 돌본다. 아저씨의 돌봄 덕분에 나무는 점점 자라나 지상의 환기구 틈새로 가지를 뻗으며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된다. 지하철 환기구에서 나무가 자란다는 소식은 금세 뉴스거리가 되지만 사람들의 신기해하는 관심도 잠시뿐, 새로운 뉴스거리에 밀려 사람들의 관심에서 잊혀지게 된다. 그럼에도 아랑곳 않고 모스 아저씨는 늘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지하정원으로 매일 출근하며 나무를 돌보고 책을 읽곤 한다. 그리고 어느 날 지상의 환기구로 가지를 뻗었던 모스 아저씨의 나무 주위로 누군가 다른 나무들을 심으며 삭막했던 구역이 푸른 생명력을 회복하게 된다. 이제는 백발이 된 모스 아저씨는 오늘도 청소를 마치고 지하정원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으로 본문의 마지막 페이지가 끝난다.

책은 가로로 좀 더 큰 판형이며 모든 장면들이 펼친 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장면마다 글 텍스트는 왼쪽 페이지의 일부 가운데에, 그림은 왼쪽 페이지의 글 옆 일부와 오른쪽 페이지 전체를 차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인물들의 구도는 주로 중경으로 잡혀 있는데 일부 장면들, 모스 아저씨가 고약한 냄새가 나는 지하철 터널 안을 마주하고 염려하는 장면과 어린 나무가 매일매일 성장하는 장면은 근경으로 잡혀 강조되고 있다. 또한 나무가 지상의 환기구를 뚫고 나와 점점 자라는 장면과 그 주변이 나무들로 가득하게 바뀌어 푸른 도심으로 바뀌는 장면은 원경으로 잡혀 있어, 나무 한 그루에서 비롯된 생명력이 도심을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를 전체적인 시선으로 조망해 주고 있다. 『지하정원』의 주 색조는 청색과 갈색, 초록색이다. 지하철 터널은 주로 차가운 청색으로 표현되어 있고 이와 대조적으로 모스 아저씨는 주로 갈색 계열의 옷을 입고 등장한다. 갈색은 갓 구운 빵의 따뜻함을 나타내는 색이기도 하고 이 작품에서는 어린 나무를 묵묵히 지지하고 돌보는 흙을 연상시키는 색이기도 하다. 차가운 청색의 지하철 공간은 갈색의 흙과 갈색 옷을 입은 모스 아저씨의 따뜻한 돌봄 속에서 자라는 나무 덕분에 책의 후반에서는 산뜻한 초록색이 가득한 색감으로 변하게 된다.

## 2) 돌봄의 성경적 본질

『지하정원』은 돌봄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 여실히 보여준다. 모스 아저씨가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한 작은 나무를 돌보며 걱정하는 모습에서, 자신의 청소구역이 아닌데도 약취의 근원을 찾아 터널 안으로 들어가 그곳을 청소하며 버려진 공간을 돌보는 모습에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작은 나무를 날마다 정성껏 가꾸고 돌보는 모습에서, 그리고 모스 아저씨가 돌본 그 나무의 생명력이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쳐 그 주변 전체가 푸른 생명력으로 회복되는 모습에서 우리는 돌봄의 근본적 동기와 그 결과를 보게 된다.

‘돌보다’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다’로 ‘도와주다’, ‘보호하다’, ‘보살피다’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Harrison(2012)은 영어의 ‘care’에 ‘돌봄’과 ‘걱정’의 의미가 함께 있으며, 일평생 누군가를(자신을 포함해서) 신경 쓰고 걱정하고 돌보고 사랑하는 인간의 삶에 대해 이야기한다. 나아가 그는 돌봄을 인간 존재의 본질적 요건 중 하나라고 한다. 이와 유사하게 권의섭(2015)도 인간은 누구나 배려의 갈망을 가지고 있으며 배려 없이는 생존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권의섭, 2015: 26). 권의섭(2015)에서 말하는 배려란 다른 사람들을 걱정해주고 그들의 필요, 욕구를 충족시켜주려고 관심을 기울이고 도와주는 마음(권의섭, 2015: 26)으로, 돌봄과 유사한 의미로 배려를 풀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간의 삶의 조건이 생존이라는 기본 욕구를 넘어선 ‘인간다움’의 상태, 인간이 갈구하는 사회적, 미학적, 생태적 충족감과 관련이 있다(최성희, 2020: 83)는 점을 감안할 때 누군가를 걱정하고 돌보는 것이 인간 존재의 본질적 요건이라는 이들의 관점은 충분히 납득이 되고 수긍이 되

는 것이다.

또한 돌봄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주신 최초의 소명으로 나타난다(김경이 외, 2019: 83).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돌보고 다스리게 하셨는데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גָּרַד, 개역한 글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창 2:5)”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גָּרַד, 개역한글 다스리며) 지키게(גָּרַד) 하시고(창 2:15)”

위에서 보듯이 5절의 ‘갈’과 15절의 ‘경작하다’는 히브리어의 같은 어근 ‘아바드(גָּרַד)’를 사용하고 있다. ‘아바드’는 ‘일하다’(창 30:26)라는 기본 의미 외에도 ‘갈다, 경작하다’(창 2:5), ‘봉사하다’(창 29:25), ‘다스리다’(신28:39), ‘힘쓰다’(신 5:13)등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성경에서 쓰인다(이상하, 2011-39). 또한 15절의 ‘지키다’의 어근은 ‘좌마르(שָׁמַר)’인데 이는 ‘살피다’(욥13:27), ‘보존하다’(시 86:2), ‘주관하다’(왕하 22:14)등의 뜻으로, 애정을 가지고 잘 보살피는 것을 의미한다(이상하, 2011: 39-40; 서성열, 2017: 123). 이를 종합하면, 하나님은 태초에 구별된 구역으로서 에덴을 만드시고 그 곳을 인간으로 하여금 경작하며 돌보게 하셨는데, 그 돌봄은 힘써 일하고 보존하며 주관하고 다스림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말하자면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돌보고 다스리는 자로 부름 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배정훈, 2012).

‘다스림’과 관련하여 배정훈(2012)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은 다스림과 관련이 있다(배정훈, 2012: 29)고 하며 그 의미를 자세히 살피고 있다. 창세기 1장 26-28절의 인간에게 주어진 명령, 즉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문화명령에서, ‘다스림’은 권위의 분명한 위계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데 그 권위가 쓰이는 목적은 결국 그 다스리는 땅, 다스림의 대상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룩한 것으로 변화하는 데 있다는 것을 ‘다스리다’는 단어가 쓰인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인용하며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께 부여받은 이 다스림의 권위는 약탈이 아니라 돌보고 양육하는 의미가 있으며(배정훈, 2012: 31) 이는 권위를 부여받은 왕적인 책임, 목자의 책임을 동반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배정훈, 2012: 31).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께 받은 돌봄의 소명은, 권능을 부여받았으며 그 권능을 자신의 소욕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돌봄의 대상을 가꾸기 위해 자발적인 수고를 하며 그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아



름다운 통치가 임하게 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지하정원』에서 모스 아저씨가 자발적인 수고를 통해 죽어가는 작은 생명을 돌보고 더러워진 장소를 가꾸는 모습은 돌봄의 선한 동기를 잘 보여준다. 그리고 그 선한 수고가 결국 주변으로 퍼져 생명력이 가득한 푸른 공간으로 변화하는 모습에서 돌봄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잘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돌봄은 장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창세기의 문화명령은 인간에게 주신 땅과 그 안의 모든 생물에 대한 다스림과 돌봄을 의미하고 그 안에는 우리 서로에 대한 돌봄, 약자를 향한 돌봄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특히 약자를 향한 돌봄은 구약에서 나그네와 과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 쓰심에서부터 신약 시대 초대교회 안에서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위한 돌봄으로까지 이어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실제로 교회는 목회적 돌봄, 돌봄의 공동체로 알려져 있으며(정성하, 2005: 176) 예수님은 어린 아이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들풀 하나도 없신여기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정성하, 2005: 175). 돌봄의 수고는 이 땅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모든 생명에게로 향하고 있다.

『지하정원』에서 눈여겨 볼 것 중 하나는 지하철 환기구를 뚫고 자라난 나무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이 금세 쏠려 유명해졌을 때에도, 그 관심이 금세 사라져버리고 말 때도 사람들의 찬사나 유명세에 상관없이 묵묵히 지하 정원을 가꾸는 모스 아저씨의 성실함이다. 외적인 것과 상관없이 정원 안에서 삶으로 키워내는 것의 행복에 헌신(Harrison, 조경진 외 역, 2012: 220)하는 그의 모습은 돌봄의 근본 동기가 무엇인지를 새삼 다시 성찰하게 하는 장면 중 하나이다.

그런데 어느 봄, 누군가 나무 둘레 딱딱한  
바닥을 걷어 내고 새로운 나무를 심었습니다.  
꽃씨가 날아와 꽃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이듬해 봄에도, 그 이듬해 봄에도  
그런 일들이 되풀이되었습니다.  
나무들은 속속 저라,  
여름이면 시원한 그늘을 드리우고,  
가을이면 고운 빛으로 도시를 물들였습니다.  
도시 한복판에 사람들이 머물다 갈 수 있는  
작은 유평터가 생겨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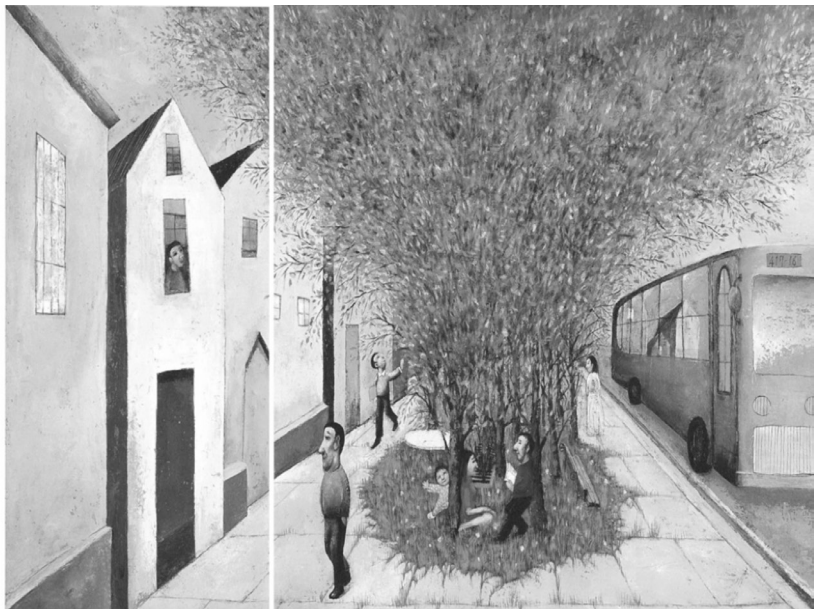


Figure 3. 『The Underground Garden』 Scene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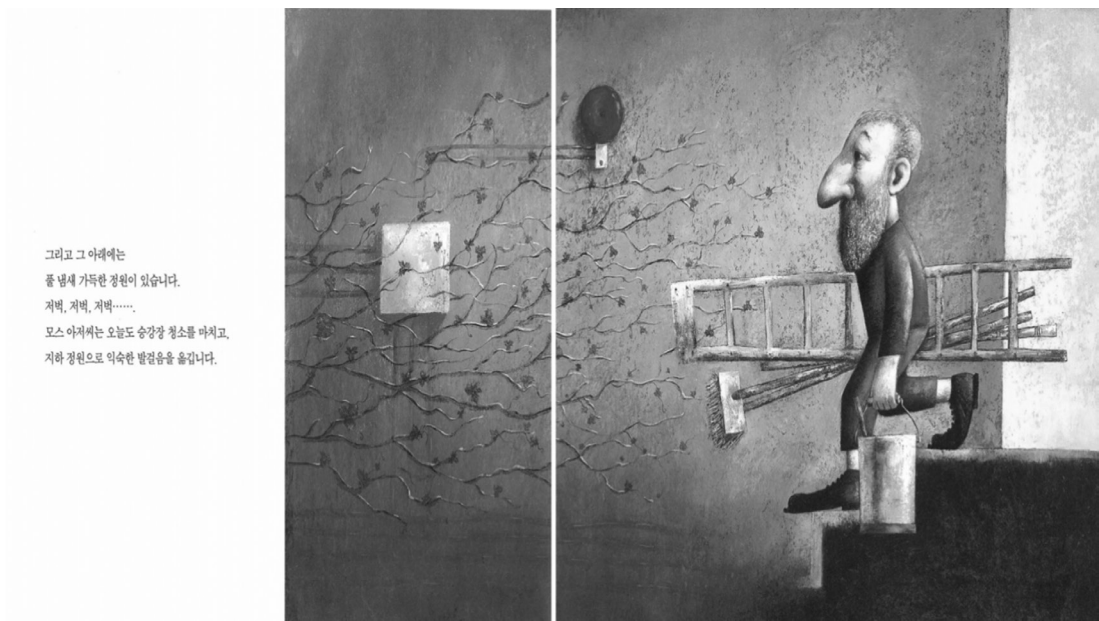


Figure 4. 『The Underground Garden』 Scene 16.

#### IV. 성경적인 아동 돌봄의 모습: 삶 속에서 전수되는 가르침 -『리디아의 정원』

##### 1) 그림책의 글과 그림

『리디아의 정원』은 사라 스투어트가 글을 쓰고 데이비드 스몰이 그림을 그렸으며, 유아와 교사에게 비교적 친근하게 잘 알려진 그림책 중 하나이다. 시골에서 할머니, 부모님과 농장을 가꾸며 평화롭게 살아가던 소녀 리디아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도시에 사는 외삼촌 댁에서 더부살이를 하게 된다. 리디아는 도시로 떠나는 짐가방 안에도 꽃씨들을 가지고 가고 외삼촌 댁에 도착하자마자 정원을 가꿀 생각부터 하는 꼬마 정원사로, 호기심도 많고 긍정적인 성격의 소유자이다. 반면 빵집을 운영하는 외삼촌은 금전 문제로 늘 고민하며 늘 뿌루뚱한 채 사람들에게 웃는 일이 없다. 외삼촌 댁에서 근 1년 정도를 보내면서 리디아는 건물의 버려진 더러운 옥상을 청소하고 가꾸어 아름다운 옥상정원으로 바꾸어 놓는다. 그리고 그 옥상정원을 어느 날 외삼촌을 위해 깜짝 공개를 한다. 외삼촌은 리디아의 자신의 집에 온 뒤 처음으로 감정 표현을 하며 빵집을 하루 휴업하고 조카를 위해 손수 케이크를 구워준다. 리디아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던 날, 1년 전 처음 리디아를 마중나오던 무뚝뚝한 때와는 이번에 외삼촌은 리디아를 꼭 안아주며 진심 어린 작별인사를 한다.

『리디아의 정원』은 전체 글 텍스트가 리디아가 고향을 떠나게 되면서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글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은 윤곽선이 검은 색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특히 색채 대조를 통해 장면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리디아가 도시에 처음 도착한 장면에서는 리디아가 거대한 역사를 올려다보고 있는데 이 때 역사는 검은색과 회색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역사를 올려다보는 리디아만이 색깔을 입고 있어 도시의 삭막함을 효과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동일한 역사가 책의 후반부 리디아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에서는 색채가 입혀진 채 리디아를 꼭 안아주는 외삼촌과 눈물 흘리며 리디아를 떠나보내는 빵집의 종업원들과 함께 따뜻한 곳으로 바뀌어 있다. 또한 많은 장면들이 갈색 색조로 표현되어 있는데 작가는 갈색의 톤을 달리 하여 빵집 장면에서는 빵 색에 가까운 갈색을, 황량한 옥상을 표현할 때는 어두운 색조의 갈색을 사용하고 있다.

## 2) 성경적인 아동 돌봄

사라 슈투어트와 데이비드 스폴은 부부 작가로 함께 여러 권의 그림책을 냈는데 이들의 작품에는 여성 주인공들이 많이 등장하고 작품 전체적으로 자연친화적인 관점이 녹아있는 경우가 많다. 『리디아의 정원』 역시 소녀가 주인공이며 자연친화적인 삶의 태도를 지향하고 있어 에코페미니즘으로 작품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이 존재한다(신세니·조희숙, 2010; 우기연, 2018). 에코페미니즘은 페미니즘과 자연, 즉 환경의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는 생태학이 결합된 개념으로, 여성과 땅의 관계를 하나로 보고, 땅으로 대표되는 여성의 존재를 남성과 동등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신세니·조희숙, 2010: 74). 또한 자연과 인간이 원래 하나라고 규정함으로써 어울림과 균형을 통한 모든 생명체의 통합을 강조한다(김옥동, 1997; 신세니·조희숙, 2010: 74에서 재인용). 실제로 『리디아의 정원』을 살펴보면 여성이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주인공 리디아와 리디아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물인 할머니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앞 면지에서 리디아와 할머니는 함께 밭을 가꾸며 농작물을 돌보는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리디아가 꼬마 정원사로서 자연친화적인 삶의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데에는 할머니의 역할이 컸음을 쉽게 짐작하게 된다. 리디아가 어려워진 가정 형편 때문에 도시에 살고 있는 외삼촌 댁으로 갈 때 타고 가는 기차 안에서, 리디아가 미리 챙겨온 그녀의 짐가방 속 꽃씨 봉투들이 이리 저리 흩어지는 장면 역시 주인공 리디아가 자연의 힘을 주변으로 퍼뜨리는 역할을 시사함과 동시에 여성과 자연이 결합한 모습을 잘 보여준다(신세니·조희숙, 2010). 또한 리디아는 작품 속에서 계속 푸른색, 초록색 계열의 옷을 입고 등장하는데 이 색조는 자연의 대표적인 색깔이기도 하고 도심의 삭막한 회색과 대조를 이루기도 한다(신세니·조희숙, 2010).

그런데 작품을 자세히 살펴보면 에코페미니즘 외에도 다르게 볼 수 있는 관점이 존재한다. 리디아의 정원에서 독자들에게 가장 인상 깊은 점은 아무래도 주인공 리디아로 인해 외삼촌의 삭막한 가게가 아

름다운 꽃들의 생명력 가득한 공간으로 변화하고, 그 곳을 드나드는 손님들이 행복해지고, 가게 경영에만 매달려 잘 웃지도 않던 외삼촌이 리디아를 위해 하루 휴가를 내고 케이크를 구워주는 모습, 그리고 리디아가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갈 때 첫 만남 때와는 달리 리디아를 꼭 안아주는 모습, 즉 리디아로 인해 그녀가 머무는 장소와 그녀 주변 사람들이 변화하는 점일 것이다. 당연히 리디아가 관심의 초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리디아가 가진 이런 삶의 태도, 주변을 변화시키는 힘은 어디에서 왔을까?

『리디아의 정원』은 리디아가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글로 글 텍스트가 이루어져 있는데, 장면 13, 즉 리디아가 외삼촌을 위해 준비한 옥상 정원의 깜짝 공개를 앞두고 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글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 이 장면의 글 텍스트에서 리디아는 ‘저는 엄마, 아빠, 할머니께서 저에게 가르쳐주신 아름다움을 다 담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라고 한다. 그림책의 플롯 전개상으로도, 리디아의 외삼촌 덕 살이에서도 가장 절정에 해당하는 장면을 앞두고 리디아가 가족에게 보내는 이 편지글에서 그녀가 꽤나 비장한 마음으로 자신의 정원을 공개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배운 아름다움이 모두 자신의 윗 세대인 부모와 할머니에게서 왔다고 고백하고 있다. 그들에게서 배운 아름다움을 다 담아내려고 노력했다는 이 문장은, 그녀가 비록 가족들과 떨어져 있지만 가족들과 함께 하는 삶에서 직접 배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여전히 그녀 안에, 그녀의 삶 속에 녹아들어 함께 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그리고 이에 따라 리디아의 가족 중 리디아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할머니 역시, 에코페미니즘의 관점으로 볼 것만이 아니라 리디아의 윗 세대를 대표하는 노인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실제로 노인은 삶의 지혜와 경륜을 가지고 있으며 아동 주인공을 도와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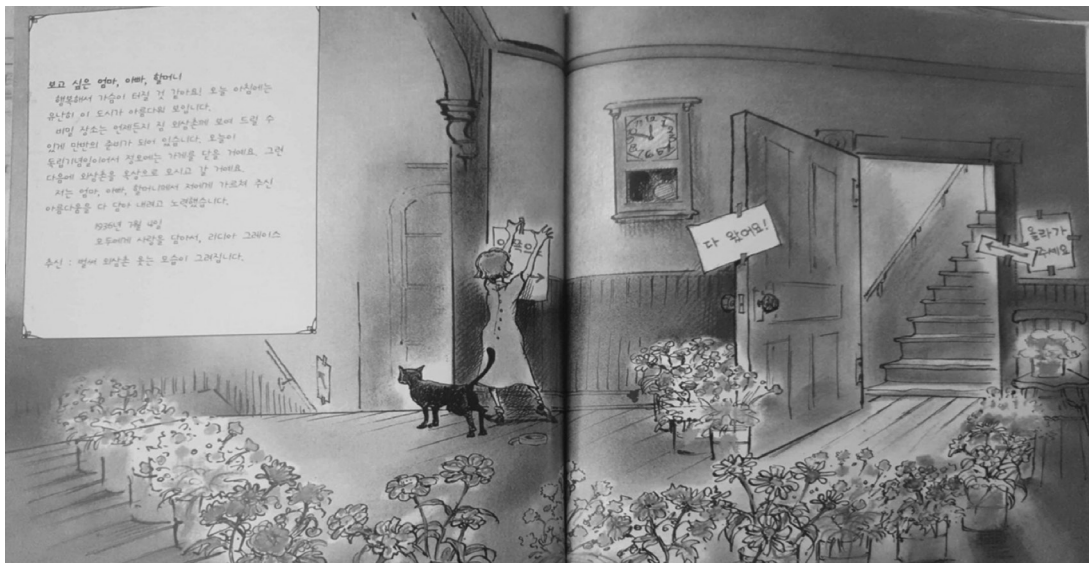


Figure 5. 『The Gardner』 Scene 13.

고 지지하는 역할로 작품들에서 종종 등장하곤 한다. 결국 리디아는 가족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윗 세대의 보호 속에서 가르침을 전수받았으며 그 가르침은 할머니, 부모와 상호작용하며 삶 속으로 스며든 것이라 할 수 있다.

리디아가 삶 속에서 부모와 할머니와 상호작용하며 가르침을 받은 것은, 신앙공동체 안에서 어린이가 자신의 믿음을 키워가는 것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어린이가 신앙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신앙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은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할 뿐 아니라 윗 세대들의 양육, 돌봄, 회심, 성화의 방법 등을 통해 부모 및 믿음의 선배가 가진 고백적 신앙을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것으로 형성하고 재구성하는 것(오연미, 2009: 39)이기 때문이다. 물론 회심과 성화는 개인과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1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신앙공동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리디아의 정원』은 앞 뒤 면지의 그림을 통해서도 본문의 플롯 전개를 돕고 있는데 앞 뒤 면지의 비교에서 재미있는 변화가 드러난다. 책의 앞 뒤 면지는 리디아가 밭에서 할머니와 함께 농작물을 가꾸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각각 리디아가 고향을 떠나기 전, 고향에 다시 돌아온 후의 변화를 미묘하게 보여주고 있다. 앞 면지에서는 리디아가 자신이 거둔 농작물을 할머니에게 무릎을 꿇고 드리고 있는데 리디아와 할머니가 둘 다 같은 페이지 안에 그려져 있다. 뒤 면지에서는 이들의 구도가 변화하는데, 리디아와 할머니는 둘 다 앞을 향하며 각각 바구니에서 꽃씨를 뿌리며 앞을 향하여 가고 있고 페이지를 차지하는 양상도 변해 있다. 리디아는 왼쪽 페이지에, 할머니는 오른쪽 페이지에 양분하여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뒤 면지에서의 이러한 구도 변화와 리디아의 자세 변화, 즉 할머니와 대등한 자세로 버



Figure 6. 『The Gardner』 The inside of a bookcover



것이 한 쪽 페이지를 혼자 차지하며 꽃씨를 뿌리고 있는 리디아의 모습은, 집을 떠나 외삼촌 댁에서 자신의 힘으로 주변을 변화시키고 돌아온 리디아의 성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리디아의 이런 성장은, 그녀가 그녀의 부모, 할머니에게서 아름다운 것들을 배우고 그것을 담아내려고 노력했다는 장면 11을 함께 고려할 때, 바로 리디아 자체가 그녀의 윗 세대가 키워내고 피워낸 꽃씨라고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새싹에 비유한 것이나 자식농사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동이야말로 윗 세대가 키워내야 하는 가장 소중한 나무이고, 성인들은 그들이 온전히 성장할 수 있는 아름다운 정원을 제공해 줘야 할 책임이 있음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 IV. 나오며

인간은 그가 처한 사회의 반영(문선화, 2015: 19)이라 할 수 있다. 아동은 부모, 형제, 교사, 친구 등 주변 사회 구성원들과 상호작용 속에 자아를 형성하며(문선화, 2015) 이 시기의 아동이 세계를 인식하게 되는 것은 주변 성인들을 모방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오연미, 2009: 33). 서론에서 아동의 인권을 논했거니와 아동은 아직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 아동의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부모와 사회의 돌봄이 필요하고 돌봄의 행위 속에서 아동은 성인과 상호작용하며 그들의 삶과 함께 어우러져 생생한 가르침을 받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이러한 돌봄의 성격적 본질을 정원을 소재로 한 3권의 그림책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정원 소재의 그림책을 통해 돌봄의 성격적 본질을 살핀 이유는, 하나님은 인간-아담에게 주신 최초의 소명이 정원-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돌보라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에덴 동산-정원은 하나님이 아담-인간에게 마련해 주신 삶의 터전이자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생명들을 다스리고 돌보도록 명령하신 곳이기도 했다. 따라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소명으로서 ‘돌봄’의 장소였던 정원이 인문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정원을 돌보고 생명을 돌본다는 것의 성격적 의미가 어떤 것인지 정원을 소재로 한 그림책들을 통해 살펴 보았다.

먼저 『용서의 정원』에서는 다툼과 반목을 일삼던 두 마을 사이에 정원이라는 구별된 장소가 만들어지면서 그 곳에서부터 평화와 용서의 싹이 움트는 것을 살펴 보았다. 동·서양 모두 정원이라는 말의 어원적 의미에는 울타리나 담을 쌓아 구별된 곳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 특히 서구권에서 정원의 시초로 여기지는 에덴 동산의 어원적 의미에는 ‘구별된 곳’과 ‘기쁨, 즐거움’의 의미가 들어 있다. 정원이라는 장소는 생명들과 그 생명을 돌보는 손길을 한데 품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 관조와 성찰을 통해 일상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가능하게 해 주는 장소이다. 그리고 일상 속 구별된 장소로서 그런 새로운 변화를 품



고 있는 장소이다. 그림책 『용서의 정원』은 그 구별된 곳에서 새로운 시선이 시작되어 두 마을 간 용서와 화해라는 변화가 시작됨을 보여주며 정원의 인문학적 의미가 가지는 힘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정원에서 시작된 새로운 변화가 정원 안에 머물지 않고 정원 밖 일상의 변화, 즉 반목 속에 있던 두 마을의 변화로 이어짐은 정원이라는 일상 속 구별된 장소가 가지고 있는 변화의 힘이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일상 속에 있으되 구별되어 있어 그 안에서 변화를 피하고, 구별되어 있으되 그 힘이 다시 정원 밖 일상을 향하고 있는 것이다. 정원이라는 장소가 가지는 이러한 속성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왕국이 건설되는 여정과 묘하게 닮아 있다. 우리의 돌봄이 행해지는 영역은 혼탁한 이 세상에 존재하나 그와는 구별되어 있으며, 구별되어 있으나 결국 이 세상을 향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지하정원』에서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작은 식물을 정성껏 가꾸는 지하철 청소부 모스 아저씨의 손길을 통해 그 생명이 아름답게 자라날 뿐 아니라 그 생명력이 주변에 퍼져 도심이 푸른 생명력 가득한 공간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모스 아저씨의 돌봄은 자신의 소욕이나 유익 때문이 아니라 생명 자체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그림책을 통해 볼 수 있었다. 돌봄의 이러한 성격, 즉 누군가를 걱정하고 관심을 쏟는 것은 인간 삶을 이루는 본질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동산을 돌보고 다스리라고 하셨을 때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왕같은 권능을 가지고 다스리되 돌봄의 대상을 향해 선한 사랑의 수고를 베푸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돌봄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소명이고 그 소명은 하나님께 받은 권능을 돌봄의 대상을 위해 자발적으로 애쓰는 것이다. 그리고 그 돌봄의 영역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회복되는 것을 소망한다.

마지막으로 『리디아의 정원』에서는 주인공 리디아가 경제 불황으로 고향 집을 떠나 도시의 외삼촌 집에 머물면서 고향에서 그래왔던 것처럼 꽃씨를 심고 화분을 가꾸고 정원을 만들면서 삭막했던 주변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리디아가 꽃을 가꾸고 정원을 만들면서 장소의 외관만 아름답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표정과 태도도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런 변화는 생업에만 매달리느라 한번도 쉬지 않고 한번도 제대로 웃지 않았던 외삼촌이 리디아를 위해 온전히 하루를 쉬는 모습으로, 그리고 리디아가 다시 고향 집에 돌아갈 때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달리 리디아를 꼭 안아주는 모습에서 절정에 달한다. 이처럼 정원으로 인한 변화는 공간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미침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용서의 정원』에서 정원을 만들면서 변화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작은 소녀 리디아가 가진 이런 힘은 그녀 혼자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가정 공동체에서 그녀의 윗 세대로부터 전수받은 것임을 그림책을 통해 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리디아의 정원』에서 가장 중요한 꽃씨는 바로 리디아임을, 가장 중요한 정원은 아동을 그렇게 키워내는 그녀의 가정 공동체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사실 아동이야말로 우리가 잘 키워내

야 하는 가장 소중한 꽃씨라 할 수 있다.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인간의 아기는 동물의 아기와는 달리 연약한 채로 태어나며 일정 기간 동안 성인의 지지와 적절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아름다운 정원을 제공하고 그들을 돌보는 것은 성인의 책무이다. 『리디아의 정원』에서는 아동 돌봄의 이러한 면과 함께 가정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삶을 통해 상호작용하며 아동을 돌보고 키워내는 것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다. 리디아가 그렇게 자라난 모습은 신앙 공동체에서 한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과도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다. 신앙의 성장은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에서 신앙의 선배들과 함께 상호작용하며 그들의 삶을 통해 믿음의 증거들을 확인하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원을 소재로 한 3권의 그림책을 통해 돌봄의 본질을 살펴본 결과, 돌봄은 하나님에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소명이고, 그 소명은 하나님께 받은 권능을 돌봄의 대상을 향해 자발적으로 애쓰는 것이며 선한 왕 같은 다스림을 중요한 요소로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돌봄이 지향하는 바는 돌봄의 영역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회복되는 것이고, 우리의 돌봄이 행해지는 그 영역은 혼탁한 이 세상에 존재하나 그와는 구별되어 있으며, 구별되어 있으나 결국 이 세상을 향하고 있음도 살펴보았다. 특히 우리의 돌봄의 가장 중요한 대상 중 하나가 다음 세대, 자라나는 아이들이라는 것을 『리디아의 정원』을 통해 살펴 보았다.

이상 돌봄에 대한 기독교적 본질, 우리의 돌봄의 가장 중요한 대상 중 하나가 자라나는 아이들이라는 점을 그림책을 통해 확인했거니와 이를 서론에서 제기했던 현 시대의 교육 사조와 맞물린 문제, 즉 아동의 자율권과 성인의 개입 간 개념적, 실천적 갈등에 적용하자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교육 현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교사들의 고민이나 갈등 등을 실제로 들으며 아동 돌봄의 책무를 맡은 성인으로서 실질적인 고민을 하게 된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유엔의 아동 인권의 밑바탕에 깔린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인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아동관에 근거할 수 밖에 없는데 그 아동관에 따라 아동 돌봄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림책을 통해 본 돌봄의 성경적 본질, 성인의 아동에 대한 돌봄의 원리를 이같은 현 시대의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점 중 하나는 아동은 성장 중인 존재라는 것이다.

아동의 이런 특성에 대한 고민은 UN 아동권리협약의 아동 권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적용을 위한 연구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김호현(2019) 같은 경우는 강행 규범, 불가침의 권리, 지지관계적 권리의 3 기준으로 권리의 위계를 살펴보고 이를 아동인권에 적용하여 생존권과 보호권을 발달권과 참여권보다 더 상위의 위계로 설정하였다. 권리의 위계 설정을 고민한 것은, 원칙적으로는 아동의 4대 기본권이 모두 동등한 위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나 실제 가정이나 교육 현장에서는 이 권리들이 서로 충돌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 충돌은 결국 아동이 아직 성장 중인 존재라는 특성 때

문에 기인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 즉 아동은 성장 중이므로 자신의 복지에 관한 모든 부분에서 완전한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동 자신의 의견을 늘 100% 수용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이 경우 아동의 자율성이 반영되지 않고 아동의 참여권이 구현되지 않게 되더라도, 아동의 보호와 생존을 위한 보호권과 생존권이 참여권보다 더 상위의 위계를 접하므로 원칙적으로 아동권리협약을 온당하게 이해하고 적용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아동인권의 이해와 적용에 대한 고민,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을 추구하는 올바른 방향성에 대한 고민들을 다룬 선행 연구들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점 중 하나는 ‘아동은 성장 중인 존재’라는 바로 그 특성이 아동인권의 이해와 적용에 있어서 가장 독특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아동의 이런 특성을 이기범(2018)은 ‘열린 미래를 향한 권리’로, 배운주(2013)은 ‘인격체로 성장할 권리(인격성장기본권)’으로 표현하고 있다. 표현들은 조금씩 다르나 이 논의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대동소이하다. 아동·청소년에게 있어서 인간존엄은 ‘인격체로 성장할 권리’(인격성장기본권)라는 특수성을 갖는데(배운주, 2013: 23), 이는 사회공동체 내에서 독립되고 책임 있는 인격체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인격의 형성, 성장, 발전 및 유지할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특히 성장과정에 있는 아동·청소년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배운주, 2013: 23)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이기범(2018)은, 성인과 달리 성장 중인 아동만이 갖는 이러한 권리를 ‘열린 미래를 향한 권리’라고 부르며, 미래에 아동이 어떤 삶을 사는가는 현재 아동에게 부여된 권리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고 있다(이기범, 2018: 32). 그리고 Feinberg(1988: 264)를 들어 아동의 자율적 선택(자기결정)과 ‘잘 삶’을 위한 이익(자기실현)이라는 두 이상이 함께, 열린 미래에 근거하여 아동권을 성립시키는 논의의 중심에 서야 하며(이기범, 2018: 32), 이 두 가지, 즉 아동의 의견 존중과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연계하는 열쇠는, 효과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동에게 매우 중요한 이익이라는 발상이라고 논하고 있다(Brighouse, 2011; 이기범, 2018: 33에서 재인용).

아동의 자율성 구현과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연계하는 열쇠가, 바람직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온전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동에게 매우 중요한 점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와 같은 논의는, 아동의 당장의 현실뿐 아니라 그들의 미래에 대해 성인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말해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기범(2018)은 아동의 열린 미래를 위해 합당한 지도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권리 ‘침해’도 허용될 수 있으며 아동에 관한 원리 혹은 의견이 충돌할 경우 균형을 맞추는 상위 기준을 아동의 미래의 가능성 확대에 둘 것을 제안하고 있다(이기범, 2018: 33). 물론 성인의 지지와 관심이 권위적 간섭이나 과보호로 흐를 염려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별 아동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이해, 아동 의견 경청, 아동 주변 성인들 간 효과적인 의사소통, 아동 의사 수용 및 아동의 자기 결정에 대한 지혜로운 판단 등 오히려 성인의 민감성과 효과적인 지도가 어느 때보다 더욱 요구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상 아동이 이처럼 성장 중인 존재라는 점을 감안할 때, 성장 중인 존재로서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란 그들의 미래의 가능성 확대에 두는 것이라는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성인으로서 우리는 아동의 미래의 가능성 확대에 대한 1차적 책임감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아동 돌봄에 임해야 한다. 아동이 온전히 성장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자원을 지니고 출생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자본의 영향이 지대하다(문선화, 2015: 34)는 점을 고려할 때 아동을 돌보는 성인의 역할은 그만큼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을 돌보는 성인으로서 우리의 책무를 생각할 때 정원 소재 그림책들이 보여준 돌봄의 본질, 돌봄에 대한 성경적 관점은 성장 중인 아동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성인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시사한다. 『용서의 정원』에서 정원이라는 구별된 구역을 만들어 일상을 새로운 시선으로 보며 변화를 꾀하고, 『지하정원』에서 보잘것없는 생명을 돌봐 주변을 그 회복된 생명력으로 물들였던 모습들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현 시대에 우리의 구별된 거룩함을 지키고 우리가 돌보는 대상들에게 자발적인 선한 수고를 해야 함이 여전히 유효하고 옳은 원리임을 말해준다. 또한 『리디아의 정원』에서 소녀 리디아가 정원을 만들면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리디아 혼자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가정 공동체 내에서 부모님과 할머니에게 가치를 전수받고 그들과 함께 하는 삶 속에서 삶으로 가르침 받았기 때문이었다는 점은, 우리가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돌봐야 하는 꽃씨가 우리의 다음 세대인 아동들임을, 그들에게 지식 뿐 아니라 삶으로 함께 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가치를 전수해야 함을 다시금 생각게 한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하는 아동의 내일이 어떤 성격의 것이어야 하는지, 창조세계의 질서와 아름다움을 다루고 있는 그림책들은 혼탁해진 이 시대에 교육의 본질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 고 문 헌

- 고정희 (2011). **신의 정원, 나의 천국**. 고양 나무도시  
[Ko, J. H. (2011). *God's garden, my heaven*. Koyang: namudosi]
- 권의섭 (2015). 포스트모던 시대의 인성교육의 방향과 실천. **새한철학회 발표논문집**, 2015(11), 13-37.  
[Kwon, E. S. (2015). *The Direction and Practice of Character Education in a Postmodern Age*. The New Korean Philosophical Association, 2015(11), 13-37]
- 김경이·임숙희·김울옥 (2019). 자기발견과 돌봄에 대한 이해와 실천: 가톨릭종교교육의 맥락에서. **종교교육학연구**, 60, 75-98  
[Kim, K. E., Lim, S. H. & Kim, Y. O. (2019). A Study on Self-Discovery and Care in Context of Catholic Religious Education: In the Context of Religious Education.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60, 75-98]
- 김호현 (2017). UN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진화하는 능력 개념의 발달심리학적 이해. **유아교육학논집**, 21(3), 269-287.  
[Kim, H. H. (2017). Developmental Understanding of Evolving Capacities in UN 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 *Paper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1(3), 269-287]
- 김호현 (2019). 권리의 위계: 영유아 교실 내 더 중요한 권리와 덜 중요한 권리의 구분 가능성 탐색. **아동과 권리**, 23(2), 215-233.  
[Kim, H. H. (2019). Hierarchy of rights: Exploring possibility of ordering young children's rights in importance in early childhood classroom.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 Rights*, 23(2), 215-233]
- 문선화 (2015). 한국사회에서의 아동의 발달권. **동광**, 110, 3-36.  
[Moon, S. H. (2015). Children's right to development in Korean society. *DongKwang*, 110, 3-36]
- 배윤주 (2013).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Bae, Y. J. (2013). *A study on the legal Right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Masters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 배정훈 (2012). 창세기 1-9장을 통해서 본 생태 신학. **Canon&Culture**, 6(2), 21-50.  
[Bae, J. H. (2012). The Ecological Theology in Genesis 1-9. *Canon&Culture*, 6(2), 21-50.]
- 서성열(2017). 흙의 사람, 하나님의 창조물을 치유하다. **한국자연치유교육학회지**, 1(1), 119-137  
[Seo, S. Y. (2017). A Man of the Soil, Healing God's Creation. *Journal of Korean Naturopathy Education*, 1(1), 119-137]
- 신세니·조희숙(2010). 에코페미니즘으로 본 '리디아의 정원'의 인물 연구. **유아교육연구**, 30(3), 71-91.



- [Sin, S. N., Jo, H. S. (2010). Reading 'Lydia' of 『The Gardener』: An ecofeminism perspective.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30(3), 71-91.]
- 오연미 (2010). **포스트모던 시대의 기독교 아동교육 -신앙공동체 이론을 중심으로**.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O, E. M. (2010). Christian Child Education in the Postmodern Era - *Based on the Theory of the Community of Faith*. Masters Dissertation.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 우기연 (2018) **사라 스투어트의 그림책에 나타난 에코페미니즘 양상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Woo, K. E. (2018). *Examine The Aspects of Ecofeminism Found in Sarah Stewart's Picture Books*. Masters Dissertation. Busna University]
- 이기범 (2018). '열린 미래를 향한 권리'를 통한 아동의 의견 존중과 최상 이익의 조화 방안. **아동과 권리**, 22(1), 23-43.
- [Lee, K. B. (2018). Convergence of Respect for the Views of the Child and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toward the Child's 'Right to an Open Future'.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 Rights*, 22(1), 23-43]
- 이상하(2011). '땅'의 회복을 위한 우주적 그리스도론.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Lee, S. H. (2011). Cosmic Christology for the Restoration of the 'Earth'. Masters Dissertation.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 임세와·양옥경·배은경 (2020). 아동·보호자·교사의 아동권리인식 수준 비교 연구: '아동최선의 이익'을 중심으로. **아동과 권리**, 24(4), 641-664.
- [Im, S. W., Yang, O. K. & Bae, E. K. (2020). A comparative study of the perception on children's rights among children, guardians and teachers: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 Rights*, 24(4), 641-664]
- 정성하(2005). 기독교적 교양과목과 모성적 돌봄. **대학과 복음 제 11집**. 167-187.
- [Jung, S. H. (2005). Christian Liberal Arts and Mothering-Caring. *Universities and the Gospel*, 11, 167-187]
- 최성희 (2020). '아방 가드닝': 영미문학으로 살펴보는 정원의 생태정치학. **영미문학교육**, 24(2), 79-104
- [Choi, S. H. (2020). 'Avant Gardening': Ecopolitics of Garden in English Literature. *English and American literature education*, 24(2), 79-104]
- 최지연 (2018). 교육공간으로서 정원의 의미 탐색: 정원교육 강좌 '비밀의 정원' 운영 사례.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23), 823-844.

- [Choi, J. Y. (2018). A Study on the Meaning of Gardens as Educational Spaces: Case of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a garden education course called 'Secret Garde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8(23), 823-844]
- 하여진 (2020). 아동·청소년의 인권수준의 변화양상과 영향요인분석: 인권교육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31(2), 33-64.
- [Ha, Y. J. (2020). An analysis of the changes and influential factors in the human rights of Korean children and youth: With a special focus on human rights education. *Korean Youth Research*, 31(2), 33-64]
- 현은자 (2017). 어린이 그림책 서평에 내포된 윤리적 속성.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8(2), 207-226.
- [Hyun, E. J. (2017). Ethical Attributes Implicit in Children's Picture Book Reviews. *Children's Literature Education Research*, 18(2), 207-226.
- 현은자·김정준·연혜민·김민정·김현경·장시경 (2019). **어린이교육 전문가가 엄선한 100권의 그림책**. 서울: CUP
- [Hyun, E. J., Kim, J. J., Yeon, H. M., Kim, M. J., Kim, H. K. & Jang, S. K. (2019). *100 picture books carefully selected by children's education experts*. Seoul: CUP]
- 이태호 역. (2015). **미술비평(그림 읽는 즐거움)**, Barrett, T. (2000). *Criticizing Art: Understanding the Contemporary*. 파주: 아트북스.
- [Lee, T. H. (2015). *Art Criticizing(The Joy of Reading Pictures)*. Paju: Artbooks. Trans. Barrett, T. (2000). *Criticizing Art: Understanding the Contemporary*. New York: McGraw-Hill companies.
- 조경진·황주영·김정은 역. (2012). **정원을 말하다**, Harrison, R. P. (2012). *Gardens: An Essay on the Human Condition*. 고양: 나무도시.
- [Jo, K. J., Hwang, J. Y. & Kim, J. E. (2012). *Gardens: An Essay on the Human Condition*. Koyang: namudosi. Trans. Harrison, R. P. (2012). *Gardens: An Essay on the Human Condi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정원을 소재로 한 그림책에 나타난 성경적 돌봄의 의미

## The Meaning of Biblical Care in Picture Books About Garden

국경아 (성균관대학교)

현은자 (성균관대학교)

### 논문초록

아동의 자율권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요즘, 특히 교육현장에서 아동의 자율권과 성인 교사의 보호 및 개입 간 갈등은 실질적인 화두가 되고 있다. 본 논문은 교육-돌봄의 본질을 기독교적으로 살펴보고, 아동에게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성인이 아동에게 제공해야 하는 권리라는 점을 말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정원을 소재로 한 그림책들을 선정하여 살펴보았는데 그림책은 유아동이 세상을 간접적으로 접하고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매체이다. 또한 하나님이 아담에게 최초로 주신 소명은 에덴 동산-정원을 경작하고 돌보라는 것이었다. 정원 소재의 그림책들을 살펴본 결과 왕적인 권위를 가지고 상대를 향해 헌신하는 돌봄, '구별된 구역'으로서 생명을 회복시키는 정원의 인문학적 의미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윗 세대의 가르침과 돌봄이 어떻게 대를 이어 아동에게 전수되고 열매가 열리는지를 볼 수 있었다. 돌봄의 본질을 기독교적 관점으로 살펴보고 이를 잘 드러낸 그림책들을 통해 우리는 돌봄을 실천해야 하는 성인으로서 책임을 다시 다질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돌봄의 기독교적 본질, 아동교육, 그림책, 정원.